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그 성과
  - 1)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
  - 2) 지역문학 연구의 현단계
3.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
  - 1) 자료
  - 2) 논저
4. 제주문학 연구의 과제
  - 1) 연구 주제(대상)와 관련한 과제
  - 2) 연구 여건과 관련한 과제
5. 맺음말

## 1. 머리말

제주의 '현대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뜻 있는 지역문인들이 제주문인협회 기관지인 『제주문학』 등을 중심으로 간간이 그 논의를 진행해 왔고, 주목받는 작가들에 관한 작가론이나

\* 이 논문은 지난 1999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15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집고 보태어 쓴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이 글에서 '현대문학'은 '고전문학'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했다.

일부 작품에 대한 작품론이 이어져 오긴 했지만, 그것이 문학연구의 차원으로 진행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문학 연구가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학계든 문학계든 일반인이든 이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제주문학 연구에 관해 신통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주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쩌서 이런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편견과 선입견이 그런 인식을 형성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그 편견과 선입견은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글은 쓰는 목적은 제주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그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제주문학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각 지역문학 연구의 경향을 살펴본 후, 자료와 논저 분야로 나누어 제주문학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향후의 연구 과제로는 연구 주제(대상)와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는 가운데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그 성과

### 1)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

지역 문제들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 필요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문화는 물론 문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설화와 민요 등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그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문학의 경우는 그 양상이 다르다.

과연 현대문학을 지역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가치가 있느냐는 데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이향아는 “현대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에 나타난 지역적인 특성을 논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동시에 위험한 일”이며 “현대문학은 그 역사가 아직 1세기에도 이르지 못했으므로 지금 정리를 서두르는 것은 성급”<sup>2)</sup> 하다고 했다.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현대문학을 지역문학

2) 이향아,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질」, 『인문사회과학연구』(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4), 37쪽.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의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이 위험하고 성급하다는 견해다. 물론 일리가 있다. 집단적인 문학인 구비문학에 비해 현대문학은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지며, 따라서 특정 작품의 특성을 찾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 아닌 작가의 특성을 찾는 것이 된다는 주장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국 현대문학을 둘러싼 제반 현상과 현실을 제대로 감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우려하는 문제 이외의 다른 부면의 더 심각한 문제를 그는 간과하고 있다.

한국 현대문학의 경우, 우리가 익히 접해온 문학은 중앙문단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문인들의 주된 활동무대가 서울이나 아나나에 따라 그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태작이 각광을 받기도 하고, 지방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좋은 작품이 묻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 나라 문학의 중앙집중화 현상은 유별나다.<sup>3)</sup>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문학<sup>4)</sup>이 홀대를 받는 현상은 지역문학 연구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역문학과 그 연구의 관련성을 밝힌 다음과 같은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

지역문학은 지역 가치를 키워내고 이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통합을 앞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인자다. 그리고 지역문학의 발전은 그 연구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지역문학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조차 결눈질 받아야 했던 까닭은 그 연구가 크게 모자랐거나 잘못 나아간 데 있다.<sup>5)</sup>

지역문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데에는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은 마땅

3) 김천혜는 독일문단의 경우 중앙문단이니 지방문단이니 하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역별 차별이 없다면서 한국문단의 서울 편중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천혜, 「지방문단뿐인 독일문학계」, 『오늘의 문화론』(지평, 1985), 48~55쪽.

4) '지역문학' 이외에도 '지방문학', '향토문학' 등의 용어가 있다. 이들 용어는 그 쓰임새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방문학은 종속적 개념이요 향토문학은 주관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 지역문학은 객관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임재해,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구상과 전망」, 『안동문화연구』 제8집(안동문화연구회, 1994), 105~106쪽 참조.

5)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경남지역문학회, 1998), 130쪽.

히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얼마든지 타당성을 갖는다. 여기서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 인간의 삶 자체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은 자연히 지역문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문학적 발전이 변방의 문학과 방언적 문학으로부터 그 힘을 충원해 온 것이 엄연한 문학사적 사실이다.<sup>6)</sup> 따라서 지역문학 연구는 곧 문학의 본질에 관한 연구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문학 연구를 통해 민족문학(한국문학) 연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 문학사도 재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지역의 문학이 특수한 여건과 다른 전통 속에서 이루어져왔는데도 그 점이 무시되어 왔으므로 그렇게 무시되어온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지역민들의 정체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과 이웃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에 큰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정체성 함양에 그만큼 유익할 수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한국문학을 더욱 다양화하고 그 범주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들이 개별지역의 독특한 언어·정서·이야기·소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창작한다면, 그것이 우리 문학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됨은 명백하다. 지역문학 연구는 지역문학 창작을 북돋게 될 것이다.

## 2) 지역문학 연구의 현단계

우리 나라의 지역문학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봄 결성된 '경남지역문학회'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 문학 관련자료의 발굴, 정리와 연구, 비평뿐 아니라 지역 문학창작과 교육 활동을 홍보, 지원하기 위한 뜻으로"<sup>7)</sup> 결성된 경남지역문학회에서는 1997년 8월 이후 『지역문학연구』를 5호까지 펴냈다. 『지역문학연구』는 창간호 이후 지역문학 발굴자료, 지역문인들의 삶과 문학에 관한 논문, 문학유적 탐방기, 지역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서평 등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6) 이강은, 「지역문학론의 개념적 역설과 현실적 긴장」, 『실천문학』 1995년 겨울호, 228~229쪽.

7) 「머리글」, 『지역문학연구』창간호(경남지역문학회, 1997), 2쪽.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태일은 『지역문학연구』 제2호에서 경남지역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한 「지역문학연구의 방향」이라는 매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논문을 제시하였는가 하면,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소명출판, 1999)에서는 '장소 상상력'과 '문학지리학' 등의 개념을 동원해 낙동강, 김해 등과 관련된 시들을 논의했다.

남송우도 『지역시대의 문화논리』(전망, 1995)와 『생명과 정신의 시학』(전망, 1996) 등을 통해 「지역문학의 현황과 과제」·「부산문학의 어제와 오늘」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학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부산문학과 관련하여 정영자가 『부산시인연구(1)』(1991)을,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재부작고시인연구』(1988)를 각각 낸 바 있다.

지역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석사논문도 이 지역에서 나왔다. 송창우의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1926년의 『참새』 이후 부산과 경상남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되는 시점인 1965년까지 이 지역에서 간행된 69종의 문예지(동인지·종합지 포함)를 일일이 정리 분석하고 있다.

강희근의 「경남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남문화연구』(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6)]는 ① 자료발굴, ② 작가 연구, ③ 동인지 연구, ④ 문학사 연구 등으로 나눠 경남문학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강언·조두섭의 『대구·경북 근대문인연구』(태학사, 1999)가 주목할 만하다. 이 저서에서는 이상화·박목월·현진건·김동리 등 잘 알려진 문인들을 포함하여 백기만·이근상·오일도·윤복술·이병각·안동수·한혹구 등 문학사에서 소외된 문인들의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한국문학의 차원에서 보면 묻혀진 문인들을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향후 한국문학사 보완의 당위성을 시사하는 저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역에서는 손광은·김동수·김용직·박홍원·이상보 등의 논의들이 눈에 띈다. 특히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울러서 전남권 문학의 형성을 조감

8) 손광은, 「지방문학의 구조적 특질과 활성화 방안—광주·전남지역중심으로」, 『용봉논총』 제19집(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김동수, 「호남문학의 실상과 그 전망」, 『송순강 교수 화갑기념논총』(원광대학교 출판부, 1991); 김용직, 「한국 현대문학사와 호남출신 시인들」, 『인문사회과학연구』(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4); 박홍원, 「호남문단의 현황과 전망」, 『인문사회과학연구』(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4); 이상보, 「호남지역의 시가문학 계보」, 『인문사회과학연구』(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4).

하고 전남문학의 전통을 부각시킨 손광은의 작업<sup>9)</sup>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문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호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등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간간이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에서는 한석수의 「충북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충북학』 창간호(충북학연구소, 1999)]가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고, 강원도의 지역문학 연구에 관해서는 필자가 거의 접해보지 못했다.<sup>10)</sup>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후원하거나 주관하여 펴낸 지역문학 자료나 연구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도 하다. 『전남의 문학』(1989), 『전남문학변천사』(1991), 『광주문학사』(1994), 『목포 100년의 문학』(1997), 『대구근대문학예술사』(1991), 『경남문학사』(1995), 『부산문학사』(1997),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1997)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간행물들은 인물·작품·문예지 등 자료를 줄줄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체계적인 기획과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자치단체의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 졸속하게 정리되었다는 지적들도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 3.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

#### 1) 자 료

제주문학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제주문학—1900~1949』(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이다. 이 자료는 그 동안 묻혀졌거나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왔던 20세기 전반기 제주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작품을 원문대로 싣고 작가의 약력, 발표 작품 목록, 작품 출처 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한 점이 장점이다. 다만 강금종의 첫 소설집 『해방의 날』(1946) 등 일부

9) 손광은은 『전남의 문학』(전라남도, 1989)이라는 편저를 내기도 했다.

10) 이는 단지 필자가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 실적 자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자료가 누락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발굴된 자료 등을 보완한 증보판을 간행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해’와 ‘제주도제 실시 5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한 『제주문학전집 I~Ⅶ』(제주문인협회, 1996~1998)<sup>11)</sup>도 하나의 성과다. 이는 문학의 전 장르를 망라하여 문인별 대표작을 중심으로 편찬한 책이다. 『제주문학—1900~1949』가 초창기 문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엮었다면 이 전집은 현재 활동중인 문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편집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전집이 연구자료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발표시기, 발표지(작품 출처)를 철저히 정리했어야 했다. 작가 소개도 약력을 기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문학적 행적을 연보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해 놓았어야 했다. 수록문인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제주 출신 중 최초로 등단한 시인인 김종원의 작품이 어찌서 빠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김종원 말고도 일부 제주 출신 문인들의 작품이 빠졌다. 또한 외지 출신 문인이면서 제주에 거주하는 문인들의 경우 어떤 경우엔 수록하고 어떤 경우엔 배제하고 있다. 결국 이 전집은 제주문학의 면모를 두루 살피는 데는 유용하지만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학 속의 제주—시 선집』(제주문화원, 1997)은 작품 발표 시기, 발표지(작품 출처), 시인 약력 등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다. 문학서적에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함으로써 아예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문학 속에서 제주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간행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왕이면 자료로서의 가치를 감안하는 기획과 편집이 병행되었어야 했다. 곧 이어 소설 선집도 나온다고 하는데, 똑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문학 연구에서 맨 먼저 부닥치는 문제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논할 만한 작품이나 작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1940년대까지의 자료는 매우 적다. 이는 제주인의 문학활동이 미약했던 데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거나 유실되어 버린 자료가 적지 않을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혀진 자료들을 추적해 발굴하는 것이 제주문학 연

11) 이 책에 대해 과연 전집(全集)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수록된 작품이 한정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로 선집(選集)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기존의 출판 관행에 따라 전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에서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 2) 논 저<sup>2)</sup>

1960~70년대부터 문학평론을 해 온 김영화·송상일·김병택은 제주와 관련된 문인이나 작품에 대한 시인론·작가론·작품론 등을 많이 썼다.

제주문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영화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을 펴냈다. 이 저서는 제주문학의 특성과 흐름, 제주의 언어·설화·역사와 제주문학과의 관련성, 제주 출신 문인들의 작품세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제주문학만을 대상으로 연구의 차원에서 접근한 저술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여러 자료의 발굴 성과를 연구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제주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후속연구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제주문학의 특성이나 흐름 등이 다소 소략하게 처리되어 버린 점 등은 아쉽게 여겨진다. 김영화는 『현대작가론』(문장, 1983)의 「최현식론—망향 혹은 실향의 아픔」, 「오성찬론—가압과 반항」을 통해 지역 작가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분단상황과 문학』(국학자료원, 1992)에서는 「집단적 편견의 무게—현기영론」, 「허구와 진실—현길언론」, 「4·3의 파편들—오성찬론」, 「피해망상의 그늘—고시홍론」, 「상상의 자유로움—김석범론」 등 4·3소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송상일은 주로 평론 차원에서 제주문학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시대와 삶』(문장, 1979)에서 「미분의 <사(私)>의식—최현식」, 「인식과 향수—김광협」, 「마흔 살의 순수—문충성」, 「선과 악의 구획—오성찬」, 「기록과 용기—현기영」을, 『천사의 풍문』(탐라목석원, 1999)에서 「'껍질'의 역사와 '속살'의 삶」(현길언론), 「끝나지 않은 두 이야기」(고시홍·한립화론), 「한라산의 역사와 '전사(前史)」, 「'살아진다'의 부정과 긍정」(김광협론), 「제주, 자연, 시」 등을 통해 그의 제주문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의 양상을 보여준다. 송상일의 작업은 연구의 차원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어서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김병택은 주로 평론 차원에서 지역문학을 접근하면서도 연구 차원의 작업도

12) 평론의 영역과 연구의 영역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글에서는 평론도 연구의 영역에 포함하여 다루되, 단행본으로 엮어낸 평론들은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회고 형식의 글이나 단편적인 글들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한국현대시인론』(국학자료원, 1995)에서 그는 [지역문학의 존재방식과 그 전망], 「변방의 자연과 삶—제주시인들의 시 세계」, 「체험의 의장(意匠)」(나기철·김승립·허영선·강방영론), 「삶 또는 비극적 정서」(김용길론), 「노래하는 시의 서정적 자아」(한기팔론) 등을 '지역문학론'으로 묶어낸다. 『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에서는 「세월·문명·현실의 시적 의미—강통원론」, 「일상의 꿈—문충성론」, 「육망과 무욕의 사이—김용길론」, 「자연의 시적 변용—양영길론」, 「불화의 시각—김석교론」, 「자연·역사·현실의 삼중주—홍성운론」, 「자연·일상의 존재방식과 극복—김영홍론」, 「역사적 진실과 시적 진실」(4·3시선집론), 「제주 시인들의 시 세계(1, 2)」 등을 통해 제주 시인들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평하고 있다. 그는 이미 『바벨탑의 언어』(문학예술사, 1986)에서 「현실과 역사를 보는 시각—문충성·현길언론」을 통해 제주문학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바 있다.

제주문학을 대상으로 한 석사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반가운 현상이다. 이계영의 「현기영 소설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와 김경선의 「최현식 소설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가 그것이다. 둘 다 작가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기영 소설 연구」는 주로 4·3을 비롯한 제주 역사를 형상화한 소설을 중심으로 현기영의 작품세계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문학사적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은 이 논문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현식 소설 연구」는 최현식의 생애를 염두에 두면서 그의 문학이 어떤 변모 양상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문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최현식이 제주신문에 연재한 장편 「원색의 침묵」이 논의되지 않은 점, 그의 연보에서 신문에 연재한 단편소설에 관한 내용들이 빠진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방법론적인 논의로는 현길언의 「제주학 연구 방법론—문학을 중심으로」[『제주도 연구』 제14집(제주학회, 1997)]가 있다. 현대문학만이 아니라 무속·민요·설화 등을 포함하여 제주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제주문학 연구가 제주학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주문학의 주변성을 규명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대문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개별작품들이 제주의 역사·문화·사회적 속성을 얼마나 잘 구조적으로 수용

해서 형상화시켰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주문학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주제는 '4·3문학'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영화·송상일·김병택 등과 함께 김재용·양영길·김동윤 등이 4·3문학에 대해 연구·정리한 논자들이다. 양영길은 「4·3문학의 흐름과 과제」[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제주작가』 제2호(실천문학사, 1999)]에서 4·3문학의 사적 전개와 향후의 과제를 시·소설·연구의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김재용은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4·3문학, 그 안팎의 저항적 목소리」[『제주 4·3 연구』(역사비평사, 1999)]에서 현기영과 김석범의 작품을 중심으로 4·3소설을 조명하였으며, 김동윤은 「4·3소설의 전개 양상」[『탐라문화』 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을 통해 4·3소설의 시기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그 역사적 흐름과 특성을 밝혔다.<sup>13)</sup>

민속문학과 현대문학의 관련성을 논하는 것도 주목되는 연구주제였다. 『제주문학』 제22집에 특집으로 마련된 '제주민속문학의 현대문학적 변용'은 의미 있는 논의였다. 문성숙·문무병·좌혜경 등이 각각 제주의 설화·무가·민요가 현대문학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규명하였다. 김영화도 「설화의 현대화」(『변방인의 세계』에 수록)를 집필한 바 있다. 이 같은 민속문학의 현대문학적 변용에 대한 연구는 제주문학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제주문단사(문학사)와 관련된 논의는 김영화 외에 고시홍·양중해 등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고시홍은 「제주문단사」[『제주문학』 제13집(제주문인협회, 1984)], 「제주문학의 어제와 오늘」[『제주문화예술헌서』(예총제주도지회, 1988)], 「문학」[『제주도지』 제3권(제주도, 1993)] 등에서 제주문단의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일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문단의 흐름을 정리한 선행 업적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양중해는 「제주문단의 형성 과정」[『제주문학』 제19집(제주문인협회, 1990)]을 통해 1950년대의 제주문학의 상황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오성찬의 「'제주시인 1호' 김지원」[『제주문

13) 김동윤은 이밖에도 「현대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탐라문화』 제17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7)], 「1990년대 제주소설의 성찰」[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제주작가』 창간호(실천문학사, 1998)],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여성」[『영주어문』 제1집(영주어문연구회, 1999)] 등 주로 소설분야에서 제주문학을 연구하였다.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학』 제22집(제주문인협회, 1992)]은 김지원의 작품을 발굴 소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4. 제주문학 연구의 과제

#### 1) 연구 주제(대상)와 관련한 과제

첫째,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에 대한 문학기록이 거의 없다. 김명식·김지원·김이옥·이영복(이영구)·이시형·吳本篤彦 등의 작품들은 모두 일본과 서울 등 외지에서 활동하던 중에 발표한 것들이다.

「농부가」(1915)를 발표한 김문준이 일본으로 건너가기까지 한동안 제주도에 서 교편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문학작품을 쓰거나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문학을 창작하거나 향유하는 분위기가 나름대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1925년에 도내 거주자 중에서 대학교나 전문학교 졸업자가 30명<sup>14)</sup>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고학력자들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당시 지식인들은 문학활동에 전념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활동과 문사(文士)로서의 활동을 겸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가사(歌詞)들도 문학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강관순의 「해녀의 노래」는 이미 김영화가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 등에서 문학 자료로 포함하여 다룬 바 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 불려지던 가사는 알려진 것도 몇 편 더 있다.

한림 출신의 이익우는 1920년대 후반에 '한수풀소년단'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그가 「한수풀 소년단가」<sup>15)</sup>를 작사했다고 한다. 이 노래는 당시 청소년들에

14)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동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130쪽.

15) 이 가사는 김찬희의 「일제침략사」, 『제주도지』 제1권(제주도, 1993), 1180쪽에 소개된 후, 김영화가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 『제주문화연구』(제주문화, 1993), 289쪽에서 문학적 측면으로 다룬 바 있다.

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한림·대정 지역에서 활동했던 문달현의 가사<sup>17)</sup>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달현은 모슬포 출신으로서 한림면에 있는 구우공립보통학교 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사는 민족의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뚫고 '희망봉'과 '자유안락'을 향해 나아가자는 내용이다.<sup>18)</sup>

1942년에 발간된 『문화조선』에는 「한라산의 노래」<sup>19)</sup>가 '섬의 사전' 항목에 실려 있다. 계절별로 4수인데, 2수만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강관순의 「해녀의 노래」처럼 널리 불려진 것인지, 노래라면 누가 가사를 썼는지, 만일 시 작품이라면 누구의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런 노래(시)가 제주에서 회자

16) "이익우 씨가 나보다 5년 선배인데 내가 14살 때 그를 만나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우리 청소년들로 한수풀소년단을 조직하여 훈련도 시키고 노래도 짓고 하며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려고 했죠.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일본놈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조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등이죠. (...)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단가도 직접 작사 작곡해서 우리에게 부르게 했죠.(...) 이런(한수풀소년단가) 노래를 부르면서 소년들이 하나하나 뭉치기 시작하니까 기백도 생기고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겨 따질 때도 이익우 선배가 앞장서니 마을사람들도 이익우 선배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단원은 50명 되었죠. 몇몇은 따로 공부했어요. (...)이익우 선배가 밤 몇 시에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 보면 사람들은 벌써 다 모여 있어요." (고경흡의 증언,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215~216쪽)

17) 해님은 서산에 빛을 숨기고 어두운 빛은 사방에 두말려온다/ 만경창파에 노를 저어라 어서 저어라, 희망 봉에 오르라/ 자유안락을 누리는 노랫소리 들려온다.

18) "(...)그때는 10살이면 보통학교(구우공립보통학교, 1923년에 명월에 있던 사립 구우면 보통학교가 조선총독부의 1개면 1개교 정책에 따라 인가를 받고 개명함)에 들어갔는데 나는 좀 늦어서 12살에 들어갔지요. 모슬포에 사시는 문달현 선생님이 우리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줬어요. 늘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일본놈에게 고통을 받아도 언젠가는 조선독립이 된다. 너희들은 어디가서도 이 생각을 잊지 말고 활동해야 한다'는 뜻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가 야유회를 가면 문달현 선생님이 지어준 노래를 부르곤 했지요.(...)"(장성년의 회고, 『제주항쟁』, 214~215쪽)

19) (一) 진달래 꽃피는 漢擘의 봉우리는/ 참다움 서려서 얼씨구 좋구나/ 눈부신 자작나무 白鹿潭/ 누구를 기다리나 좋구나 좋아 // (二) 푸르름이 흐르는 한라의 봉우리는/ 거치른 羅漢도 얼씨구 좋구나/ 푸른 옷에 선선히/ 누구를 기다리나 좋구나 좋아. (『20세기전반의 제주도』(제주우당도서관, 1997), 72쪽에 번역 수록)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되었음은 분명하니, 이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알려진 초창기 작가들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문학』에 「금지」 등을 발표한 吳本篤彦의 경우 김영화와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에 의해 제주도 출신임이 밝혀졌고, 그의 문단 경력도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sup>20)</sup> 다만 그의 학력 등 신원이 아직 미상이다. 그의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문학세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김영화와 오무라에 따르면 주로 평론을 썼던 오정민도 제주 출신이러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김이옥의 문학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많다. 누이동생(김소옥)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시보다는 소설을 더 많이 썼다고 하며, 일본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친구 최길두가 소장하고 있던 일어시(『신생』에 소개된 시 포함)들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의 문단 경력 등을 찾아내는 것도 과제인 셈이다. 『문학과비평』 1990년 가을호에 수록된 「일본어로 표기된 한국인 작품 목록」에는 김이옥의 「夜曲」과 「悲しき人」(1940년 『日本詩壇』 발표)이 있는데,<sup>21)</sup> 이 김이옥이 제주출신 김이옥과 동일인물인지의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김명식의 문학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고, 친일문학을 쓴 양종호의 작품세계도 정확히 소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강금종의 경우 첫 창작집 『해방의 날』(청년문화사, 1946)을 논의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방직후의 문학 활동에 관한 것이다. 잡지 『신생(新生)』(1946)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오해가 있다.<sup>22)</sup> 이는 『신생』 목차에 이 책이 제2권 제1호로 명

20) 김영화, 「오정민은 누구인가」, 『제주문학』 제31집(제주문인협회, 1998), 299~304쪽.

다만, 김영화가 정리한 吳本篤彦의 작품목록에는 「개遶く」(『국민총력』 1944년 11월 1일치에 발표)가 누락되어 있다. 吳本篤彦이 이 소설을 썼음은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의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65쪽에 나와 있다.

21) 호테이 토시히로에 따르면, 『문학과비평』 1990년 가을호~1991년 여름호에 수록된 「일본어로 표기된 한국인 작품 목록(1)~(3)」은 大村益夫·任展憲 編著,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東京:ブリットピアネ, 1984)을 “장르별로 나눠 저자의 승낙 없이 무단 게재한 것으로서 원저의 오식까지 그대로 옮긴 것이다. 호테이 토시히로, 위의 논문, 11쪽.

기된 데 따른 오해로 보인다. 이영복의 증언에 따르면 창간호라고 알려진 것은 '평론'이라는 제호로 나왔으며 잡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 내용도 미국헌법해설만을 게재하고 있어 문학과는 무관하다. 결국 현재 남아 있는 『신생』이 창간호이자 중간호인 셈이다.

『신생』 이외에도 당시 일부 인민위원회와 청년동맹에 문예부를 두고 있었음을 보면, 도내 각지에서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46년 5월 애월면 인민위원회와 청년동맹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신광(新光)』 창간호를 보면 '행복을 얻은 범생(凡生)' 혹은 'K생(生)'의 시 「자유(自由)」와 「한라산(漢拏山)과 해녀(海女)」가 실려 있다. 또한 이 책의 말미에는 기고를 환영한다며 '문학 작품'도 투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제주신보』<sup>22)</sup>에는 문학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운예술연구회(曙雲藝術研究會)'라는 단체가 있었으나, 음악·연극 등을 위주로 활동하고 문학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다만, 경찰기관지인 『경성(警聲)』 창간에 관한 기사<sup>25)</sup>에서, "新朝鮮 警察의 諸般 研鑽과 警察官의 情操涵養及 文學素質의 向上"을 목적으로 창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방직후에 도내에서도 문학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성』에는 경찰 홍보기사 이외에 수필 정도가 실렸을 뿐이다.<sup>26)</sup>

초창기의 제주지역 문학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4·3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당사자는 물론 증언해 줄만한 인물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그때 유실된 자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역사 연구 등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전쟁으로 피난 왔던 문인들의 행적과 문학 세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피난 문인들이 제주문학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했음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져 있다. 특히 계용묵은 그 중심인물로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계용묵을 다룰 때에 동인지를 만드는 등 제주의 문학 열기를 복돋웠다는 면에

22) 이문교 『제주언론사』(나남출판, 1991), 141쪽. 이 책에서의 오해는 이영복의 「나의 재직 시절」(『제주신문』 1979.8.21.)이라는 글을 잘못 해석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23) 제주4·3연구소 제작 영인본.

24) 1947년 1월 12일치 2면 하단 광고 참조.

25) 『제주신보』 1947년 1월 16일치 2면.

26) 이영복 증언.

##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는 많이 논의하는데, 정작 그의 문학 작품과 제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없다. 물론 이는 그가 제주에서 창작한 소설이 없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가 제주와 관련하여 남긴 수필 「탐라 점철(耽羅點綴)」에 관해서도 좀처럼 언급이 없는 점은 의아스럽다. 아울러 피난 문인들에 대한 조명이 계용묵에게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장수철 등 다른 피난 문인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신문들을 문학텍스트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에 발간된 『제주신보』에는 양중해·옥과일·조철·고영일 등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학과 관련된 기사들도 게재되어 있다. 앞으로 1950년대 제주문학에 관해 서술할 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때 발간된 『탐라신보』 등도 찾아내서 문학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문에 연재된 소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신문』의 신문소설들은 80년대 이후에는 지면 때우기 식으로 연재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꼭 비중을 두고 소설을 게재했으며, 그 독자층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 연재소설들 중에는 콩트, 소품 정도인 것들이나 문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일단 논의를 거쳐 그 작품성 여부를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실증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신문』에는 1957년 말부터 소설을 연재했다.<sup>27)</sup> 손창섭의 「결혼의 의미」, 박용구의 「비어(飛魚)」 등 본토[陸地] 작가들의 작품이나, 토마스 하디의 「아내를 즐겁게」(김순택 역) 등 외국 작품들이 게재되기도 했다. 최현식·오성찬·현길언·오경훈·고영기·정영택·김용해·김순이 등 제주 작가들의 작품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작품들 중 일부는 개인 창작집에 재수록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더 많다.

최현식의 장편 「원색의 침묵」(63.1.1.~63.9.25.)은 지금까지 그의 작품 세계를 말할 때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소설이다. 기존의 논의들이 단편들만 가지고

---

27) 『제주신문 50년사』(제주신문사, 1995), 1430~1432쪽에는 1957년부터 1994년까지 『제주신문』에 게재된 연재소설 목록이 실려 있다.

파악되어 왔기에 그가 전혀 장편을 쓰지 않았던 작가로 오해될 수도 있다. 이 작품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길언은 1980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추천이 완료되었다. '늦깎이 작가'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지만 그는 등단 이전에도 꾸준히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 「호오이」(64.11.12.~11.22.)·「신장개업(新裝開業)하는 마을」(69.10.20.~11.5.)·「유자꽃」(70.2.19.~5.18.)·「목련 꺾어지다」(71.4.23.~5.12.)·「바람이 분다」(72.2.7.~5.30.)·「말젓삼촌」(78.7.4.~7.17.) 등 『제주신문』에 게재된 중·단편들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현길언의 소설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들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오경훈도 「해심(海心)」(71.2.15.~3.10.)·「심인(尋人)」(78.6.22.~7.3.) 등을 등단 이전에 신문을 통해 발표했다. 90년대 들어 뒤늦게 등단한 고영기도 「붕괴」(64.11.24.~12.9.)와 「출삭포기(出朔浦記)」(71.8.2.~8.31.) 같은 단편을 연재한 일이 있다. 등단 절차를 밟은 작가는 아니지만, 정영택의 소설들도 여러 편 연재되었다. 「고독한 응시」(64.12.10.~12.19.)·「또 하나의 반역」(70.1.7.~1.17.)·「하얀 목마름」(70.8.22.~11.6.)·「귀향기(歸鄉記)」(71.4.6.~4.22.)·「어떤 죽음」(71.9.2.~10.30.)·「서증(暑症)」 등이 그것이다.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는 김순이는 「목마의 노래」(69.11.6.~11.28.)·「사계(四季)」(70.5.19.~8.21.)·「불새」(71.11.1.~72.2.4.) 등의 소설을 발표했고, 김용해 시인도 「고백기(告白記)」(69.12.15.~70.1.6.)라는 소설을 연재했다.

여섯째, 동인지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기존의 여러 글들에서 어떤 동인지들이 출몰했음을 개략적으로 밝히고는 있으나 작품 분석 등 체계적인 정리가 덜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논문인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를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문협외의 기관지 『제주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등단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 작품들이 창작집에 재수록됨으로써 논의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주제들을 충분히 연구해 나간다면 20세기 제주문학사가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제주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은 곧 근대 이후 제주인들의 정신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정립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제주문학 연구자들에게 부여된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 2) 연구 여건과 관련한 과제

앞서 제시한 주제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급선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신문, 동인지, 종합지, 기관지 등의 자료들을 쉽게 열람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 독립 제주도서관 등에는 초창기 신문이나 문예 관련 서적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 유실된 자료들을 찾아내는 한편, 현재 보관중인 자료들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 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화하거나 영인본으로 제작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초창기의 자료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나오는 지역 문인들의 작품들마저도 도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정리하고 있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몇 년만 더 방치되면 1980~90년대의 자료들 중에도 유실되는 자료가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전시할 '제주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개인 문학관들도 건립하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한 지역의 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학관을 건립하자는 것이 성급한 주장은 아니다. '제주문학관'은 물론 현대문학 분야에만 국한하여 운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민요나 무가 자료 등을 아우르는 문학종합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연구의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육성, 나아가 관광산업에까지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제주문학 연구 주체의 확충과 협력에도 주력해야 한다. 제주문학 연구가나 연구단체, 전공자와 같은 연구주체를 넓히고 키워나가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sup>28)</sup>

현실적으로 연구주체는 대학이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학과나 연구소가 개설된 제주대학교가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떠맡아야 한다.

제주대학교의 관련 학과는 물론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다. 그러나 양과에는 지역문학과 관련된 강의는 없다.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의 계기를 만들고 주

28) 박태일, 앞의 논문, 115~132쪽. 박태일은 ① 기초 문헌의 간수와 갈무리, ② 연구 주체의 확충과 협력, ③ 아마추어리즘과 정실주의의 극복, ④ 주인 의식과 지역 통합 등으로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을 밝혔다. 연구 여건과 관련된 필자의 주장은 이 논문에 힘입은 바 크다.

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과 전공과정에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부제·복수전공제에 따른 최소전공학점제 실시 등으로 전공시수가 대폭 축소되는 마당에 지역문학 관련 강좌를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경남대<sup>29)</sup>처럼 대학원 과정에 지역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대학원 과정의 지역문학 관련 강좌 개설은 제주문학 연구에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 교양과목에 '제주문학의 이해' 같은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sup>30)</sup> 이는 '제주사의 이해', '제주사회의 이해', '제주방언의 이해' 등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무리한 주문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이 경우 제주문학의 범위는 고전문학·구비문학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 연구소로는 탐라문화연구소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탐라문화연구소는 19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그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형편이며, 이런 탐라문화연구소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소에 상근할 연구 인력, 혹은 연구 보조 인력을 대학 당국에서 배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전임연구원은 고사하고 그나마 연구 업무와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던 조교 자리마저 90년대 중반부터 없애버렸다. 상근하는 연구 인력이 없으니,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학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최근에 결성된 사단법인인 '제주학연구소'나 '제주전통문화연구소', 그리고 '제주문화원' 등에서도 제주문학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어국문학을 연구하는 '백록어문학회'나 '영주어문연구회'에서도 제주문학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를 해나가야 한다. 이들 단체들에서 각기 맡은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대학과 연구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제주문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9) 경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는 1994년부터 '지역문학연구'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박태일, 위의 논문, 122쪽.

30) 물론 학부 교양과정의 강좌가 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충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제주문학의 이해' 같은 강좌가 필요한 것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제주문학 연구가 왜 필요하고 그 연구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물론 이러한 의도 속에는 앞으로 제주문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라는 기대도 들어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학 연구는 문학의 본질에 관한 연구와도 긴밀히 연결되며, 한국문학 연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문학사 재정립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국문학을 다양화하고 그 범주를 넓히는 데 이바지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역문학 연구는 '경남지역문학회'가 결성된 부산·경남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제주문학—1900~1949』은 초창기 문인들의 작품을 원문대로 실었다는 점 등에서 유용한 연구 자료이며, 『제주문학전집 I~Ⅶ』은 현재 활동중인 문인들의 대표작을 게재함으로써 제주문학의 면모를 두루 살필 수는 있으나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셋째, 논저 부문의 연구 현황을 보면, 제주문학만을 연구의 차원에서 접근한 저서로는 유일한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최현식·현기영 등 제주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논문도 나왔고, 제주문학 연구 방법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4·3문학은 가장 주목되었던 연구 주제였으며, 제주민속문학의 현대적 변용 양상이나, 제주문단의 변천 등에 관한 논의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넷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과제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에 제주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에 관한 탐구, 초창기 작가들에 대한 보완 연구, 한국전쟁시의 피난 문인들의 문학 세계 재정립, 지역 신문들을 문학텍스트로 끌어들이는 문제, 동인지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섯째, 연구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초자료의 확보와 보관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 마이크로필름화와 영인본 제작이 시급하며, '제주문학관'의 건립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제주문학 연구 주체의 확충과 협력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지역문학 연구는 각 지역에 삶의 뿌리를 둔 문학연구자

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의 문학 연구자들은 지역문학을 연구해야 할 책무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문학 연구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문학 연구는 중앙문학 연구의 식민지도 아니고, 자격이 의심스러운 비전문가가 학문하는 체 행세하는 저자거리가 아니”기에 “변두리 의식과 호사취미에서 벗어나”<sup>31)</sup>야 한다. 지역에 터전을 둔 연구주체들이 진지한 자세로 지역문학을 연구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

31) 박태일, 앞의 논문, 130~131쪽.